

2025년 더 특별한 기회 회복중심생활교육 지원

전주교육지원청, 지역 초·중·고 56곳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4개 프로그램 지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은 학생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25년 더 특별한 기회! 회복중심생활교육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 관내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25곳, 고등학교 12곳, 총 56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관계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은 평화로운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회복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과 회복적 대화 모임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도 병행

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회복적 의사소통 교육과 동아리를 운영해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우리학교 적응교육'은 전학을 오거나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운영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이어 '생명존중 교육'은 학생 및 학교 부적을 학생들을 예방·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상담 활동이 이뤄지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신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를 마련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기 사례 대응 연수도 운영,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뜻한 학교 만들기 교육'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회복중심생활교육 실천학교를 중심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일반화를 추진하고, 교사 연수 및 실천가 모임을 운영해 교사들이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기 교육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적 문화를 조성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더욱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7일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박노준 총장(사진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학기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공식 시작했다.

우석대, 올해 재학생 4300명에 '천 원의 아침밥' 제공

대학 교양관서 공식 시작... 테이크아웃 가능 간편식 형태로 제공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올해 4300명의 재학생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기로 했다.

7일 우석대에 따르면 이날 교양관에서 박노준 총장과 교무위원, 이광범(미디어영상학과 4년)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학기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공식 시작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양문화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다.

식사 가격은 6,000원으로, 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5,000원은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지원한다. 사업 운영 기간은 1학기 20일과 2학기 23일로, 매일 100명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간편식 형태로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준 총장은 "건강한 아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정부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략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선 국면,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

서거석 교육감, 전략회의서

“대선 국면으로 인한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전략회의에서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6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주요 업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상위원들과 잘 협의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교육 관련 공약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이창근 교수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취임

전주교육대학교 이창근 교수(국어교육과)가 제 13대 한국어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7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한국어교육학회는 1963년 창립 이래 1,000명 이상의 회원과 함께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어교육을 대표하는 학술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국어교육 연구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 현장과 정책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이창근 교수는 “학회의 위상을 높여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성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부상돈 교수

유전체식물성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부상돈 교수(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가 한국유전체식물성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2년이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유전체식물성학회는 1990년대 초반 유전체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동호인 모임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다. 유전체와 관련 산화물 분야의 연구자들의 학문 연구 소용의 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 2007년 출범했다.

현재 유전체 연합 심포지움 그리고 한일강유전체 심포지움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체 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능성을 갖는 산화물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학, 재료 공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 결과를 함께 논의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유전체식물성학회의 학술대회들은 명실 공히 강유전체 및 산화물 연구 교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상돈 선임 회장은 “한국유전체식물성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재난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힘 보태고파”

전북대, 영남지역 산불피해 돕기 특별모금 펼쳐
구성원들 동참 633만원, 사회복지모금회로 전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구성원들이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번 모금활동은 양오봉 총장과 대학 보직교수들이 뜻을 모으면서 시작했다. 이어 각 단과대학과 학과 교수들, 행정실 직원과 본부 직원들까지 전북대 전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양오봉 총장을 포함한 보직교수들이 320만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구성원들도 최근까지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총 633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모금은 전북대 구성원 모두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작은 정성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모금된 기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내일 국립군산대 체육관에서

2025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가 오는 9일 국립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이후 계속 전주에서 열렸던 합동채용설명회가 이번에는 군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지역 균형적 기회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

올해 합동채용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역기관·본부 8곳, 전북도내 6개 대학, 유관기관 3곳이 참여한다.

채용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지역인재 취업성공사례발표와 각 기관 취업상담부스가 운영된다. NCS 특강과 모의면접 및 컨설팅도 실시되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스널컬러와 면접 메이킹 등 이벤트 부스와 국립군산대 사업단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일 2025학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서포터즈 및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주대, JJ 취업서포터즈 발대식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5일 2025학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서포터즈 및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을 통해 'JJ 취업서포터즈(10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홍보와 청년고용정책 참여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콘텐츠 기획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재학생 40명을 선발, 진로취업 프로그램 홍보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우수기업 모니터링단(4기)'는 지역 내 기업과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30명의 재학생이 참여하며, 기업탐방과 현직자 인터뷰,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취업 서포터즈와 기업 모니터링단은 9개월 간의 집중홍보Day, 온라인 설명회, SNS 콘텐츠(비로그, 카드뉴스 등) 제작 등을 통해 청년고용정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학생 건강, 꼼꼼히 챙긴다’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가동

전북교육청, 건강취약 학생 지원 프로그램 한층 더 강화
전문의-보건교사 지원제 운영... 학생 건강상담도 쉬워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체계적 건강관리 시스템인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는 학생들의 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건강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건강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질환이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교사와 담당 교사가 전문의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보건교사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학생의 급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 상담도 쉬워진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북교육청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누리집 내 학생건강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